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 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7월 2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19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6. 7. 19. (화)	담당부서	세계무역기구과
담당과장	박성진 과장 (044-203-5630)	담 당 자	이보라 사무관(044-203-5633)

세계무역기구(WTO) 환경상품협정(EGA) 협상 가속화, 우리 대응전략 점검

- 「EGA 협상 대응 민관 대책회의」 개최 -

□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환경상품 교역활성화를 추구하는 세계무역기구(WTO) 환경상품협정(EGA: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) 협상의 금년 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,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.

○ 환경상품협정(EGA) 협상 참여 10개국*은 '16.7.9~10일간 중국 상해에서 개최한 **20개국(G20) 통상장관회의**에서 '**9월 G20 정상회의까지 합의점**(landing zone)을 **도출**하고, 올해 **말 환경상품협정(EGA) 장관회의에서 최종 타결**'(G20 통상장관 성명)하는 것을 **목표로 설정**한 바 있다.

* 10개국 : 한국, 미국, 유럽연합(EU), 중국, 일본, 호주, 캐나다, 터키, 뉴질랜드, 싱가포르

□ 이에 따라, 산업통상자원부는 **제15차 환경상품협정(EGA) 실무협상**(7.25~29, 스위스 제네바)을 앞두고 우리 대응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**「EGA 협상 대응 민관 대책회의」**(통상협력심의관 주재)를 개최했다.

* 일시/장소: '16.7.19(화) 15:00~17:00,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(여의나루실)
(붙임 1 : 회의 개요)

○ **환경상품협정(EGA) 협상 대응 민관 대책회의**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환경편익이 분명한 품목을 최종 목록(리스트)에 반영하면서, 우리 기업의 경쟁력 등이 고려될 수 있는 최적의 협상 대응방안을 정립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.

□ 현재 17개 세계무역기구(WTO) 회원국*이 참가하고 있는 환경상품협정(EGA) 협상은 그간 14차례 협상을 통해 논의 대상을 **340여개 품목으로 축소**했고, 이번 15차 협상에서 품목이 보다 축소할 예정으로, 각국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치열한 논의가 전개될것으로 보인다.

* 17개 참가국: 한국, 미국, 유업연합(EU), 중국, 일본, 호주, 캐나다, 뉴질랜드, 노르웨이, 스위스, 대만, 싱가포르, 홍콩, 코스타리카, 이스라엘, 터키, 아이슬란드

○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논의는 90년대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,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등 차원에서 시작되어, '01년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(WTO DDA) 협상 의제에 포함되면서 본격화 되었으며, '14. 7월 세계무역기구 복수국간 협정(plurilateral agreement) 협상으로 공식 출범했다.

□ 이민철 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은 "작년 파리협정 채택 이후,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**환경상품협정(EGA) 협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크다**"며, "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환경상품 분야의 글로벌 시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, **환경상품협정(EGA)** 협상을 **새로운 시장 개척과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활용**할 수 있다"고 강조했다.

○ 아울러, "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범용제품에 대해서는 **환경기여도가 높은 제품으로 한정**해 시장을 개방하고, **중소기업**이 주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**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**으로 협상력을 집중하겠다"고 말했다.

※ 붙임 1: EGA 협상 대응 민관 대책회의
붙임 2: EGA 협상 개요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박성진과장(044-203-5630), 이보라사무관(563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1 WTO EGA 협상 대응 민관 대책회의 개요

□ **개 요**

○ **목적** : WTO 환경상품협정(EGA)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, 관련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 우리 대응전략 점검

○ **일시** : '16. 7. 19(화) 15:00~17:00

○ **장소** :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 회의실(여의나루실)

○ **참석자** : 약 30명

- (산업부) 통상협력심의관(주재), 세계무역기구과장
- (관계부처) 기재부, 외교부, 환경부, 복지부, 산림청, 관세청 등
- (협회/기관) 무역협회, 환경산업협회, 기계산업진흥회, 철강협회, 전지산업협회, 신재생에너지협회, 전자정보통신진흥회, 전기산업진흥회, 섬유산업연합회, 판유리산업협회, 내화건축자재협회, 석유화학협회, 환경산업기술원, 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, 목재협회, 철도차량산업협회 등

□ **세부 진행**

시 간 (분)		내 용	비 고
15:00~15:10	10′	인사 말씀	통상협력심의관
15:10~15:30	20′	협상 동향 및 대응전략 보고	세계무역기구과
15:30~17:00	90′	토론 및 질의응답	

Indus

붙임2 WTO 환경상품협정(EGA) 협상 개요

□ 환경상품 자유화를 위한 복수국간 협상(17개국 참여)이 **'14.7월 공식 출범**하여, **'16.6월까지 14차례 협상 개최**

* 17개 참가국 : 한국, 미국, 중국, EU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캐나다, 노르웨이, 스위스, 대만, 싱가포르, 홍콩, 코스타리카, 이스라엘, 터키, 아이슬란드

□ 각국 제안품목을 취합하여 **650여개 통합품목리스트**(HS 6단위) **작성**

○ 우리나라는 민관T/F 협의(통상차관보 주재)를 거쳐 **46개 품목*** **제안**

* 우리나라 주요 제안품목 : LED조명, 컨덴싱보일러·온수기, 리튬이온전지, 탄소섬유, 용접/무계목강관, 열교환기, 물여과기, 컨베이어, 파쇄·분쇄기 등

○ 품목별 환경편익, 지지의사 등을 검토하여 **자유화 대상품목 축소**

* EGA 품목축소 : 650개→('15.9월) 470여개→(11월) 360여개→(12월) 340여개

※ [참고] 주요 협상대상 품목

△**APEC 54개 환경상품**에 더하여, △태양광·풍력·수력·지열 등 **신재생에너지 제품**, △펌프·밸브·파이프 등 **수처리 제품**, △미네랄울·유리섬유 등 **단열재**, △LED조명·인버터에어컨·고효율 전동기 등 **에너지효율 제품**, △목재·자전거·물절약 소변기 등 **친환경 제품**, △**검사·측정기기 등**이 포함

○ 또한, 세관전문가 작업반(Customs Working Group)을 통해서는 세부표기(ex-out)* 구체화 및 기술적 쟁점(품목분류, 세관이행 등) 등 검토

* HS 6단위 내에서 특정한 품목, 특히 환경 관련 품목으로 한정하는 방식

□ 주요 참가국은 **금년 말 협상 타결을 목표**로 **협상 가속화 추진**

○ '16.7.9-10일 G20 통상장관회의 계기 EGA 10개국간 협의를 통해, G20 통상장관 성명에서 **금년 말 협상 타결 목표**에 합의

* 10개국: 한국, 미국, 중국, EU, 일본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, 터키, 싱가포르

○ **제15차 협상**(7.25~29)에서 품목 범위를 좁혀나가는 한편, 발효요건, APEC 환경상품, 세부표기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할 예정